



1970 년의 부로일러 전망

민 덕 기

(인산농원 전무)

I. 1969 년도 부로일러 사육 상태

우리 나라 양계 전망을 정확히 보기 힘든 것과 같이 역시 부로일러의 전망은 더 어렵다고 보며 다만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대로 적어 보려고 한다.

1969 년도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육면으로나 소비면으로 보아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으며 사육 규모가 부업에서 전업으로, 개인에서 단지 조성으로 발전하여 다수 사육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소비 시장은 치킨센터(서울에만 500 여개소 추정)를 봄으로 하여 활기를 띠었고, 유통 과정에서도 위생적인 기계 처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등, 부로일러 사육에 여러모로 박차를 가한 해였다.

① 1968 년도 부로일러 종계 수입과 실제 부로일러 생산 수수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의 종계 수입 전체 수수는 약 222,000 수였으며, 이 중 부로일러 종계는 약 70,000 여수였다.

이에 부로일러 생산 추정수를 따져보면 육용 전용종 종계 사육의 기술이 완전하지 못한 관계로 수입 종계 수수의 표준에 상당하는 부로일러를 생산하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표준으로 보아서 70,000 수 중 암놈을 약 60,000 수로 잡아 약 500 만 수의 부로일러가 연간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며(종계 암놈 1수당 종란 100개 평균 부화율 85%, 육성율 97%), 실제로 어느 종계장에서는 종계 암놈 1수당 50수의 초생추 밖에 생산하지 못한 곳이 있고, 이보다 나쁜

곳도 많기 때문에 평균을 어디에 두어야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표준에서 20%를 줄여 보아 약 400 만수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위와 같이 연간 약 400 만수의 육용 전용 부로일러가 계절적인 차이를 두고(여름에 대부분 생산된 것으로 70~80%로 봄) 생산되었다.

여기에 전용종과의 잡종(통칭 “세미”라고 함)이 전용종의 수배(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판매되는 수로 보아 약 5~6배로 추정함)가 생산되어 서울에서만 1일 소비되는 상황을 다음 표와 같이 추정하고 있다.

구 분	1969년 여름 성수기		1969년 10월말	
	종 류		종 류	
전용종과 잡종	약 80,000 수	40,000~45,000 수	약 30,000 수	20,000~25,000 수
영 계				

※ 인산 부로일러 사업부 조사

서울 이외의 중소 도시는(부산을 서울의 10분의 1 이하로 추정하고 대구는 수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임) 실제 인구 비율에 비하여 너무 적어서 별로 생각하여 보지 않았으며, 금년에는 비교적 지방 도시에서도 소비와 생산이 모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② 1968 년도와 1969 년도 부로일러 시세 변동

아래와 같은 시세 변동이 있었으나, 시장 소매상으로 넘어가는 시세는 이보다 10~20원 상회하였다. 대체로 하락시에는 아래 표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사육 농가도 많았고, 반대로 상품이 없어 값이 비쌀 때에는 더 받는 농가도 있었다.

연 월 일	생계kg당단가	연 월 일	생계kg당단가	연 월 일	생계kg당단가	연 월 일	생계kg당단가
1968 6월~9월	250~270	1969 3.13~3.24	210	1969 9월 5일	225	1969 12.1~12.5	170~190
1968 10월초~11중	200~220	1969 3.25~4.20	220	1969 9.6~9.18	220	1969 12.6~12.15	예정 170~180
1968 11월중순~12월중	240~250	1969 4.21~5.24	210	1969 9.19~10.12	210	1969 12.16~12.31	예정 180~200
1968 1.19~2.12	140~170	1969 5.25~7.22	200	1969 10.13~10.16	205		
1968 2.13~2.21	160~170	1969 7.23~7.30	220	1969 10.17~10.29	200		
1968 2.22~3.6	180	1969 7.31~8.19	240~260	1969 11.1~11.10	195~200		
1968 3.7~3.12	190~200	1969 8.20~8.29	230	1969 11.11~11.30	200~220		

* 생산 원가는 대개 10g 당 175~190 원 이내에서 오르내렸다.

* 위 표는 인산 부로일러 사업부 조사

③ 1969년도 육계 전용종 중계 수입 상황

정확한 것은 농림부 통계에서 밝혀지겠지만 대략 알아본 수는 전 종계 수입수가 약 22 만수이고 이 중 12 만수가 육용 전용종 중계로 알려진다.

II. 과거 부로일러의 판매 과정

사육자가 생산한 부로일러가 얼마나 유리한 가격과 안정된 판매 과정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가는 직접적으로 사육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 과정의 개선은 부로일러 사업의 발전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1967 년도까지는 완전히 달걀 장사의 수집, 또는 큰 생계상들이 보내는 자전거꾼에게 판매되고 있었으며, 1968 년에 들어서 전용종도 수가 많아지고 판매 단위도 커져가기 시작하였다. 1969 년도부터는 전업 부로일러 사육자가 많아지고 여기에 울인·울아웃식 사육 방식으로 개척 되어가고, 생계상의 단위도 커져서 차(車)단위로(1회 1,000~1,500 kg) 시작되어 서로간의 신용이 지켜지는 가운데 거래되었다.

따라서 큰 생계상은 산하에 작은 생계상을 가지고 여기에 도매로 파는(사육 농가 시세보다 kg 당 15~20원 차가 있음) 과정을 만들어 냈다.

이에 축산 특히 양계에 관계있는 기업가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게 된 것이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사육자의 안정된 거래를 보장하면서 유통 과정의 이익을 보려는) 도계 공장인 것이다.

서울에는 과거 소규모의 도계 처리 장소가 몇 곳 있었으나, 1969 년에 본격적으로 계획되어 생긴 것이 2 개소가 되었다.

이 2 개공장의 처리 가능수는 약 30,000 수(1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가동은 1 개소 뿐인데 그나마 능력의 몇 분의 1 을 처리하여 적지만 위생적인 것을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다.

III. 1970 년 부로일러 전망

① 1969 년도 육계 전용종 중계 수입으로 본 금년도 실제 부로일러 생산 추정수

약 12만수 중 암놈을 약 10 만 5 천수로 보고 육성된 부로일러는 8,610,000수(105,000수×82 수)가 생산될 수 있으며, 여기서 약 20 % 를 감하여 실제 사육 생산 가능수가 약 6,888,000 수가 연간 생산된다고 보는데 대부분 여름에 집중 출하될 것이다.

1년 중 5월~10월까지 180일 동안에 전 생산수의 75 % 가 생산된다고 추정해서 약 530 만수로 따져 1일 평균 전용종으로 약 3만수(대부분 서울을 소비 대상으로)가 출하될 것이며, 여기에 잡종(세미)까지 합하면(1969 년도에 약 5~6 배로 봄) 18 만~20 만수가 생산될 것으로 보아

□특집 : 1970 년의 양계 전망

1969년도의 성수기 판매량에 비하여 약 2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해마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들어 서울 이외의 대도시에서도 소비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아 소비는 무난하리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늘어난 생산 조건(부화장의 초생추 증가와 사육 농가의 증가)이 비수요기에 들면서 잘 조절되지 않으면 급격한 생산 과잉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만 부로일러의 유통 과정의 개선과 이에서 오는 유통 과정업자의 증가로 인한 판매 경쟁이 소비량을 증가시켜 계절적인 음식으로 알고 있는 닭고기가 일반화 된다면 모르되 금년에는 역시 이 분야도 개척하는 해에 불과하고 자리 잡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② 금년도 가격 전망

1969년 생계 가격이 예민하게 변화 되듯이 금년도에도 변화는 많으리라 보며, 다만 계절적인 폭선은 예년에 준할 것 같다. 전장에도 말했지만 고비는 겨울에 가서 있지 않을까 보인다.

월별 가격을 예상하여 보면(생계 kg당)

1월~3월	170~200원
4월~6월	190~220원
7월~9월	220~260원
10월	190~220원
11월	170~200원
12월	180~210원

이상과 같은 전망은 필자 자신의 사육 경험과 판매한 경험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의 의견도 많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로일러 사육자의 가장 관심거리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산품 판매처로서 도계공장의 금년도 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공장명	소재지	비고
인산영등포구동촌동 한국부로일러	영등포구구로동	1969년 여름부터 가동 1969년도 완공 현재 가동 하지 않고 있음
Y	동대문구	금년 수요기를 기하여 가동 예정
D	성동구 천호동 안양군 방 수원군 방	" " 미 정 "

이 외에도 간단한 탈모기와 약간의 시설을 하고 현장 처리하는 곳이 3~4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곳에서 계획하고 있으며, 적어도 금년에 4개소에서는 도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측하는데, 1일 약 40,000수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부화장이나 사료 공장을 겸하고 있는 것이 통례로 사육자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사육자들도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이들 업자와 안정된 거래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는 경향이 짙으나 쌍방이 서로 외국과 같은 어떤 계약 형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정선의 협정으로 거래가 되기에는 서로 자세가 갖추어 있는 것 같지 않아 우왕 좌왕하는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이것 역시 금년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 크다.

<양계 서적 안내>

오봉국 지은 **최신 양계 요론** (문운당 발행)

한인규 지은 **가금 영양학** (집현사 발행)